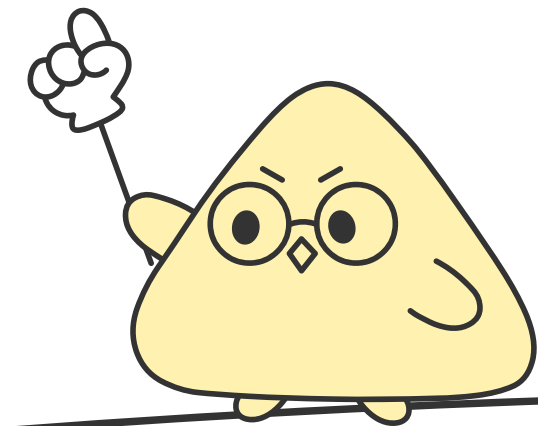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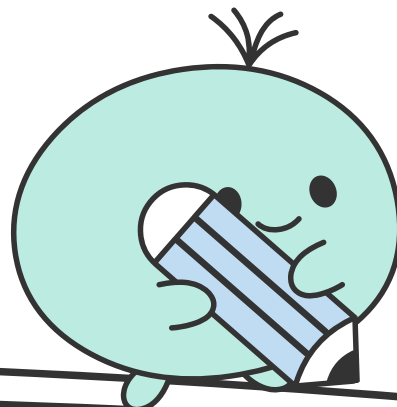


2026년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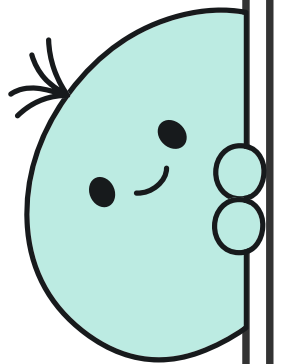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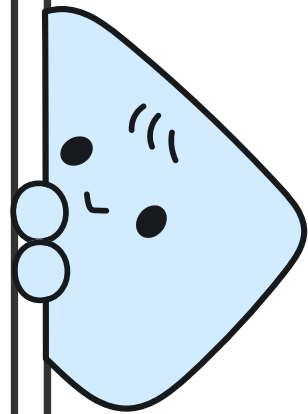
UNI
GLO

유니글로

문해력을 연구하여 유아의 삶을 글로 연결하는 공동체



학급공동체 구성



공동체 소개



유니글로

문해력을 연구하여
유아의 삶을 글로 연결하는 공동체

유아가 문해력을 바탕으로 세상과 글로 소통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론적 연구와 현장 실천을 이어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경기, 경북, 전북, 전남교육청에 소속된 교사 5명이 '유아 문해력'이라는 연구 관심사로 결성하여,

서로 다른 교육환경과 배경을 가진 교사들이 다각적 관점을 공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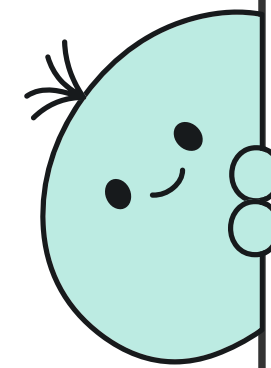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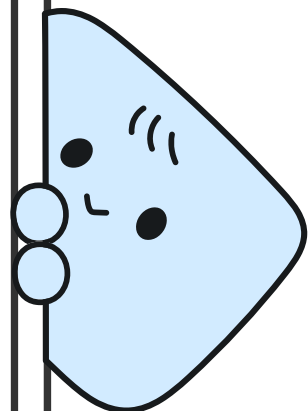
현장 범용성이 높은 협력적 학습공동체를 지향한다.

운영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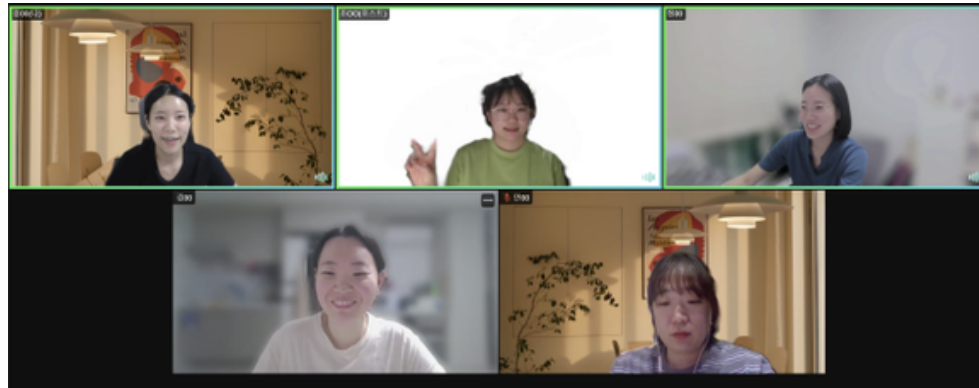
- 균형적 문해의 이론적 토대를 연구하면서 현장에서 유아 발달에 적합한 문해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 개별 유아의 경험과 발달 속도를 고려한 ‘균형적 문해 접근’을 통해 세밀하고 풍부한 문해 경험을 제공하여 문해력 성장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
- 디지털 매체에 과도하게 노출된 현대 유아들에게 흥미로운 문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고 배움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학급공동체

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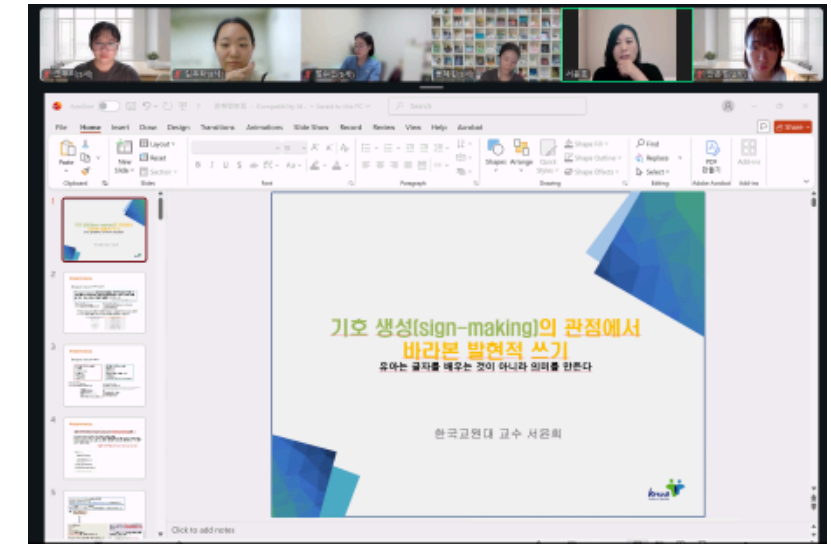
운영방법 : 매월 2회 온라인 화상 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실시간 비대면 모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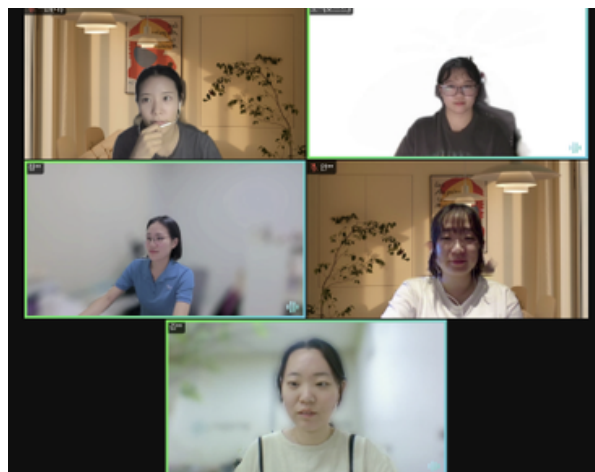
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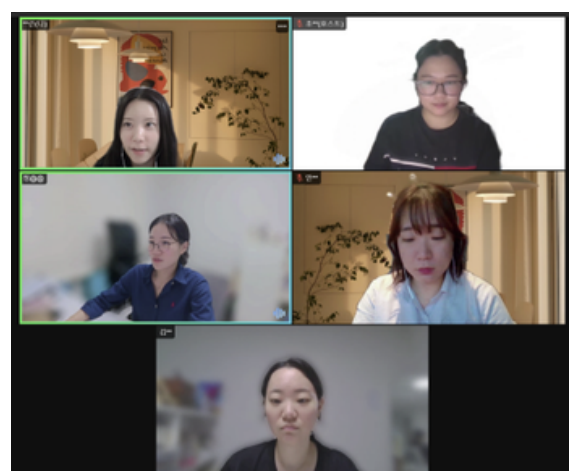
2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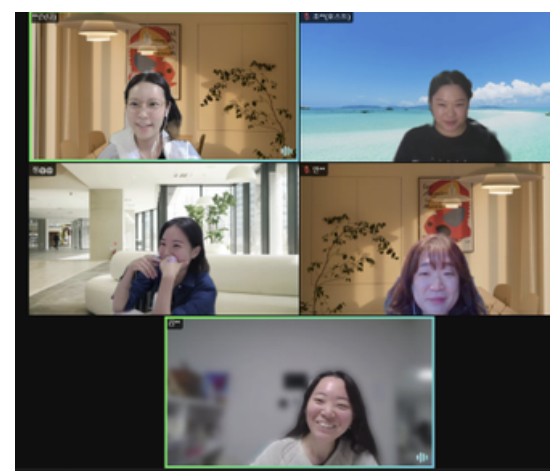
3차시(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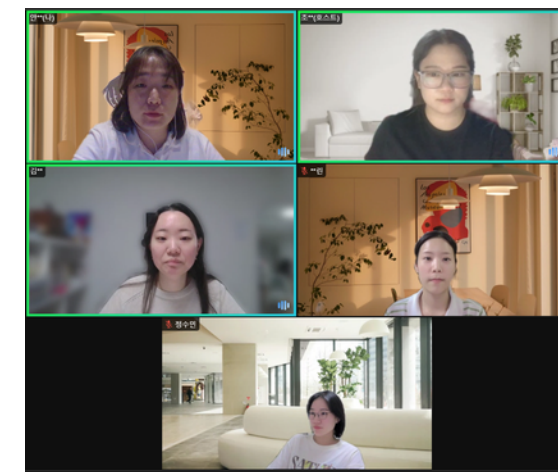
4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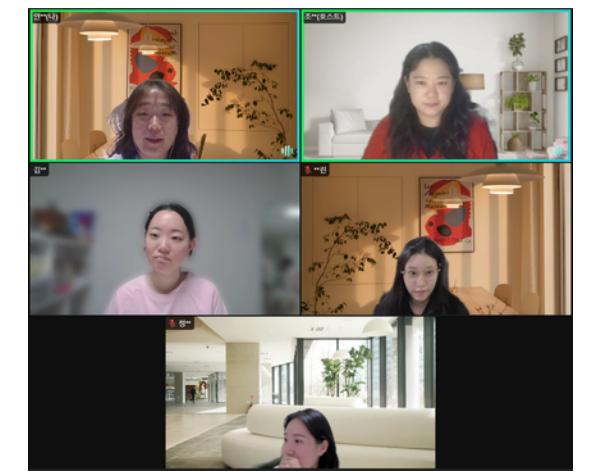
5차시



6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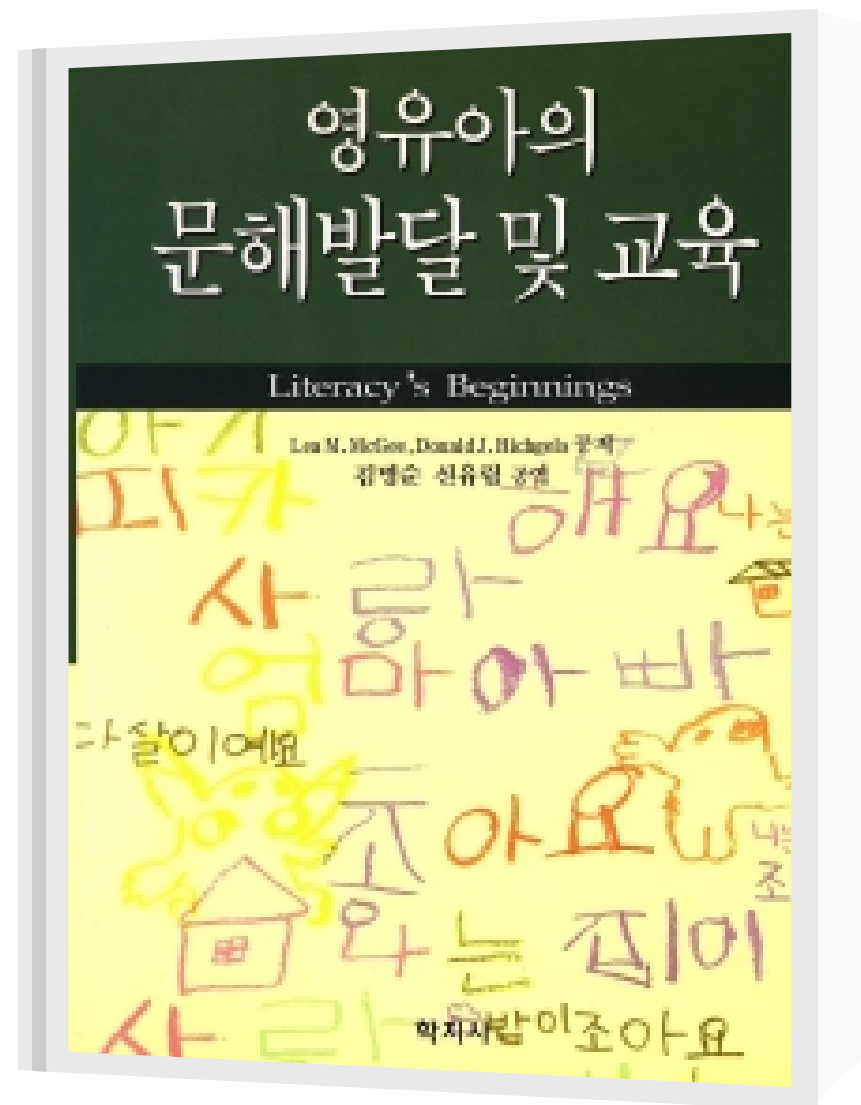


7차시



8차시

운영형태



1) 전문 서적 읽고 인상 깊은 부분 나누기

‘문해발달의 시작’에 대한 전문 서적 탐구

‘초보적 읽기와 쓰기’에 대한 전문 서적 탐구

‘실험적 읽기와 쓰기’에 대한 전문 서적 탐구

‘관례적 읽기와 쓰기’에 대한 전문 서적 탐구

운영형태



2) 유아의 문해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해 본 사례 나누기

‘문해발달의 시작’을 읽고 교실 속 문해 행동 관찰 및 평가

‘초보적 읽기와 쓰기’을 읽고 교실 속 문해 행동 관찰 및 평가

‘실험적 읽기와 쓰기’을 읽고 교실 속 문해 행동 관찰 및 평가

‘관례적 읽기와 쓰기’을 읽고 교실 속 문해 행동 관찰 및 평가



운영형태

NAME: 전** 상상놀이_두근두근 편의점 간식을 먹는다면?

- 그림책 속 과자가 주는 의미 이해하기
- '만약에'상상을 통해 자신과 연관지어 새롭게 의미 생성하기
- 내가 생성한 그림을 보여 어떤 의미인지 글자로 표현하기

NAME: **린 '이야기 가게' 감상 후 창의적인 이야기 짓기

유아들이 아빠와 파파놀이를 변형한 이야기 재구성해 봤지만, 곧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새로운 이야기를 짓는 재미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 이야기 구성요소를 알 수 있는 그림책 '이야기 가게' 감상하기
- 벽면에 이야기 구성 요소(종류(분위기), 소재, 장소, 주인공), 미니책 종이접기 방법 게시 → 이야기 짓기 욕구 자극
- 유아의 요청에 따라 유아가 지어낸 이야기 적어주기(출력), 자신이 지은 이야기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기회 주기

3) 문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사례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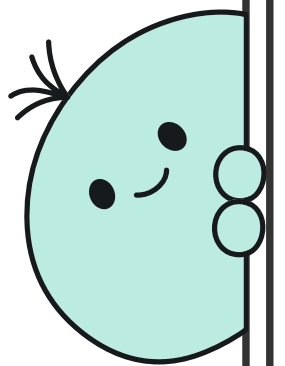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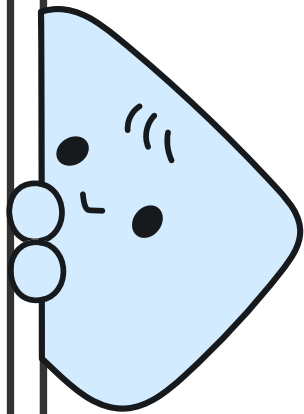
‘문해발달의 시작’을 읽고 실천한 교육활동 사례 나누기

‘초보적 읽기와 쓰기’을 읽고 실천한 교육활동 사례 나누기

‘실험적 읽기와 쓰기’을 읽고 실천한 교육활동 사례 나누기

‘관례적 읽기와 쓰기’을 읽고 실천한 교육활동 사례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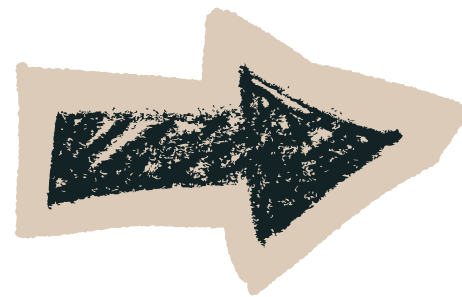
학습공동체를 통한 배움



새로운 관점 정립

기존의 시선

- 글자를 썼는가?
- 철자가 맞는가?
- 이름을 쓰는가?
- 아직 'ㅁ'자를 제대로 못 쓴다.
- 글자를 흉내낸다.



새로운 관점

- 어떤 기호를 만들었는가?
-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 누구와 공유했는가?
-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 어떤 의미가 만들어졌는가?
- 자신만의 기호로 '식당'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조직하고 있다.
- 의미를 생산하는 사회적 실천이다.

발현적 쓰기를
기호 생성을 통한
의미구성으로
이해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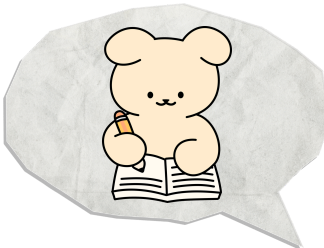
새로운 관점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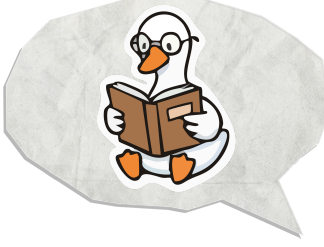
유아기에 글자를 읽고 쓰는 과정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구성의 과정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글자를 맞게 읽고 쓰는 것보다 **유아들이 의미 표현의 즐거움을 느끼는 환경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xx-



유아의 문해 행동에서 의미 구성이 중요함은 알고 있었지만 **표현된 의미를 사회문화적으로 해석하고 의미의 변화 가능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xx-



관례적인 글자 뿐만 아니라 유아가 적은 모든 기호들(모양, 색, 소리, 몸짓 등)이 유아의 의미를 표현하는 상징체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도 **아이들의 문해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각도로 지원해야하는 교사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조xx-



‘유아는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기호를 만들며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라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유아가 쓴 글자의 철자가 맞는지 틀린지에 주목했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유아가 숫자, 글자, 그림, 표식 등 다양한 기호로 생성하는 의미에 주목하여 관찰해야겠다**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xx린-



놀이중심이라는 가면 아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글을 ‘가르칠까’에만 목적을 두고 교수법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과정, 즉 기호생성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유아들이 어떻게 한글에 의미를 구성하고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지에 주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정xx-

- 유아는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기호를 만들며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이다.

- 기호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맥락 속에서 기호를 통해 어떤 의미를 구성하고자 했는지 유아의 의도를 해석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공동체 이전 우리의 시선

NAME: 안**

유아의 문해 행동 관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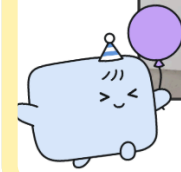


교사: 이름에 '이응'이 있는 친구 복도에 줄 서세요.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는 @@이는 자리에서 앉아있다.)
교사: @@아, 너 이름에 '이응' 들어가는데?
@@: 아니야. 내 이름은 '기역'이야. 자기 이름 글자에 'ㅇ'이 들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

문해 행동의 의미 해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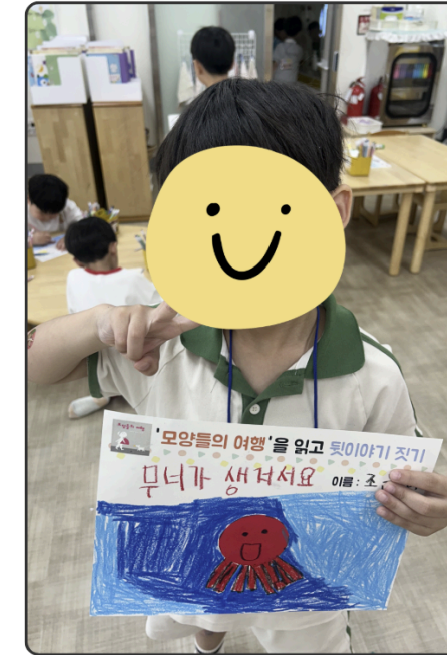
교사가 미술작품에 이름을 적어보자고 제안을 하자 @@이는 자신의 이름 글자에 있는 'ㄱ', 'ㅣ', 'ㄴ', 'ㅁ'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표현함. 정확하지 않지만 자모음의 형태를 일부 인식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유아가 적은 이름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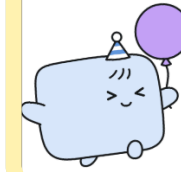
NAME: 조**

유아의 문해 행동 관찰 사례



윤민이의 쓰기 행동 관찰

- 윤민이는 읽기 쓰기에 자신감이 높으며 교사 도움 없이 스스로 읽고 쓰는 것을 선호함.
- '저는 문어가 생겼어요'라고 쓰고 싶어요'라고 하며 그림과 같이 써옴.
- 관례적 읽기 쓰기를 주로 하지만 '문어'를 '무너'로 쓰거나 '생겼어요'를 '생겨서요'라고 쓰는 등 아직 오류 발생
-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을지?



- 유아의 문해발달 단계를 진단 및 평가하는 데 그침.

“@@이는 통단어로 외워서 쓰는 것 같고 글자의 형태와 소리를 연결짓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초보적 쓰기 단계 인 것 같아요.”

- 철자를 맞게 썼는지, 어떤 오류가 나타났는지에 초점을 둠.

“‘문어’를 ‘무너’로 쓰는 등 아직 오류를 보여요.”

학습공동체 이후 새로운 관점

NAME: 김**

유아의 문해 행동 관찰 사례

〈서진이의 쓰기 과정〉

1. 환경판을 보고 색종이를 보며 'ㄷ'을 쓴다.
2. 환경판을 보고 색종이를 보고 'ㄴ' 쓴다.
3. 환경판을 보고 'ㅇ'을 빠르게 쓴다.
4. 환경판을 보고 색종이를 보고 'ㄹ'을 쓰고 나서 '동물'하고 중얼거린 후에
5. 환경판을 보지 않고 'ㄴ'을 씀.
6. 환경판을 보고 색종이를 보고 'ㄹ'을 쓴다.
7. 그 다음 색종이를 한 번 다잡고(?) 연필을 잡고 한 번 망설이는 모습이다.
(환경판에는 '동물'만 써있었기 때문에 '원'을 보고 쓸 수 없었음)
8. 5초 생각 후 먼저 'ㅇ'을 쓴 후 곧바로 'ㄹ'을 쓴다.
9. 연필을 정리하려다가 동물원 글자 옆에 하트(♡) 그리고 정리



문해 행동의 의미 해석하기

‘드두’를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지만
‘동물원’을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씀
→ 따라 쓰기를 할 때는 방향을 신경쓰기보다
글자를 정확히 따라쓰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
(‘여물동’이 된다는 것을 언급해주는 것이 좋았을까?)

‘동’까지는 환경판과 색종이를 번갈아보며 쓰지만
‘ㄹ’을 쓴 후에 ‘동물’하고 중얼거린 후 ‘ㄴ’을 스스로 씀
→ 자기가 쓰고 있는 단어 중 어떤 음소를 쓰고 있는지 인식하
고 있음
→ 몇 개의 자모음을 소리에 맞게 쓸 수 있음
(평소 읽기쓰기: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스스로 읽으려 하는 태도)

8.5초 생각하는 과정에서 ‘원’ 글자에 대한 소리와 그에 맞는
철자 생각이 끝난 것으로 보임.
(서진이의 발음: ‘원’을 ‘연’으로 발음함)
‘ㄴ’을 빠뜨린 것에 대해, 그리고 서진이가 쓴 글자의 소리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으나 놀이를 방해하는 것 같아 멈춤

NAME: 정**

유아의 문해 행동 관찰 사례

〈쓰기 행동 관찰〉

- 문장: "푸시하대에 더러져서안개저서요" (요한이가 직접 읽어준 내용: "꼭신한테에 떨어져서 안 깨졌어요")
- 교사가 다시 물어봤을 때 요한이는 처음엔 정확하게 읽어냄
- 교사가 글자를 짚어가며 재차 확인 질문을 하자, 요한이는 가운데 '에'를 스스로 틀렸다고 판단해 자우고 자리를 떠남
- 교사의 의도(내용 확인)와 요한이의 반응(오류 지적으로 받아들이기)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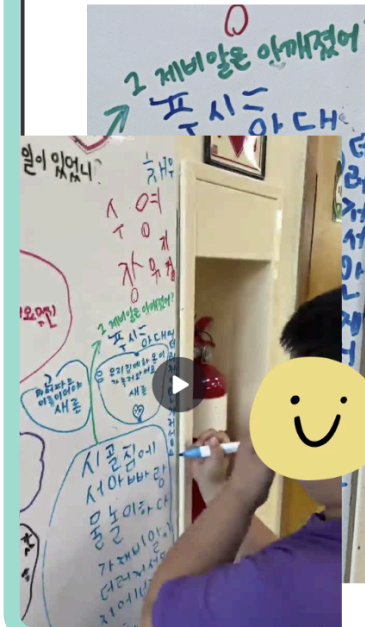
〈해석〉

- 교사가 짚어가며 다시 물어본 행동을 "확인 질문"이 아니라 "오류 지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요한이에게 여전히 자신
의 결과물이 재확인받는 상황 자체를 '틀렸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민감성이 남아있음을 보여줌.
- 아동의 문해 능력 자체보다, 성인의 되묻기(재확인 질문)가 유아에게 어떻게 지각되는지가 참여 지속 여부에 큰 영향



교사의 고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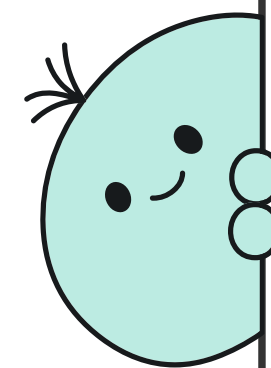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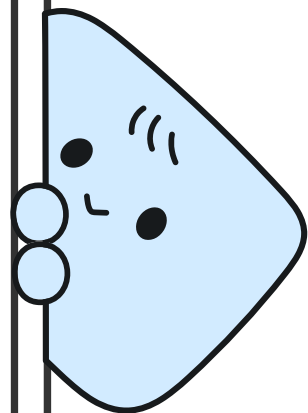
“이 단계의 유아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쓰기 행동을 격려하면서도 관례적
쓰기로 나아가도록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 단순히 ‘맞게 잘 썼는가?’가 아닌 유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싶었는지

쓰기 의도에 대해 연속적이고 깊이 있게 관찰하는 교사의 시선을 가지게 됨.

향후 적용 계획



- 이후 월 1회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각기 다른 교사들의 현장 사례를 상호 교환하여 다채롭고 풍부한 교육을 유아들에게 지원하고자 한다.
- 앞으로 유아기 문해 발달과 관련된 전문 서적, 문헌 연구 등을 통해 유아기 언어 활동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 대학원생 간의 학문적 연대를 확장함으로써 유아 언어교육 및 그림책 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현장 실행 역량을 고도화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